

Issue Brief

JEJU WOMAN & FAMILY RESEARCH INSTITUTE

[No.27]

발행처: (재)제주여성가족연구원 | 발행일: 2018. 04. 30 | 발행인: 이은희

「국민 삶의 질 지표」로 본 제주지역 여성건강

이연화¹⁾

목 차

1. 연구목적
2. 전국과 제주지역 여성 건강상태
3. 전국과 제주지역 여성 건강행위
4. 요약 및 정책시사점

1) (재)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

1. 연구목적

- 제주지역은 대표적인 '장수와 건강의 섬'으로 제주지역 남녀의 기대수명은 82.1세로 전국 기대수명 81.80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(통계청, 「생명표」 2014)²⁾. 또한 제주지역 여성의 기대수명은 85.9세로 남성 78.3세보다 높아 제주지역 여성의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 여성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?
- 통계청의 「국민 삶의 질 지표」³⁾에는 국민 건강의 질을 측정하는 9개의 지표가 있음. 200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와 더불어 얼마나 잘 사는 가라는 건강의 질을 높이고자 '건강상태'와 '건강행위 및 환경'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지표를 개발 함
- '건강상태'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대수명, 건강수준별 기대여명, 주관적 건강평가, 스트레스 인식정도, 고혈압 유병률, 당뇨 유병률로 6개이며 '건강행위 및 환경'을 측정하는 지표는 비만율, 규칙적 운동 실천율, 소득 계층별 의료미충족률로 3개임
-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건강의 질 지표 중 의료서비스에 속하는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⁴⁾을 제외 한 8개의 지표로 제주와 전국 남녀별 '건강상태'와 '건강행위'를 비교 분석해 제주지역 여성들의 건강의 질을 살펴보고 함

2. 전국과 제주지역 여성 건강상태

1) 기대수명 및 건강수준별 기대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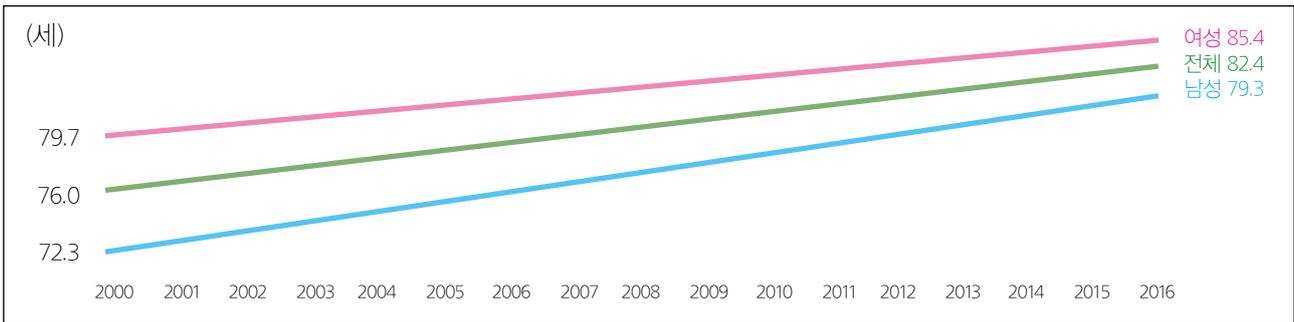
- 어떤 사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수명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 반적인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임
-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대수명은 여성 85.4세, 남성 79.3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6.1세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남

2) 통계청에서 시도 생존년수(기대수명)는 3년 주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2014년이 최근 자료임

3) 「국민 삶의 질 지표」란 국가에서 국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며 소득·소비·자산, 고용·임금, 사회복지, 주거, 건강, 교육, 문화·여가, 가족·공동체, 시민참여, 안전, 환경, 주관적 웰빙 등 12개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

4)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이란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(치과제외)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의 소득계층별 차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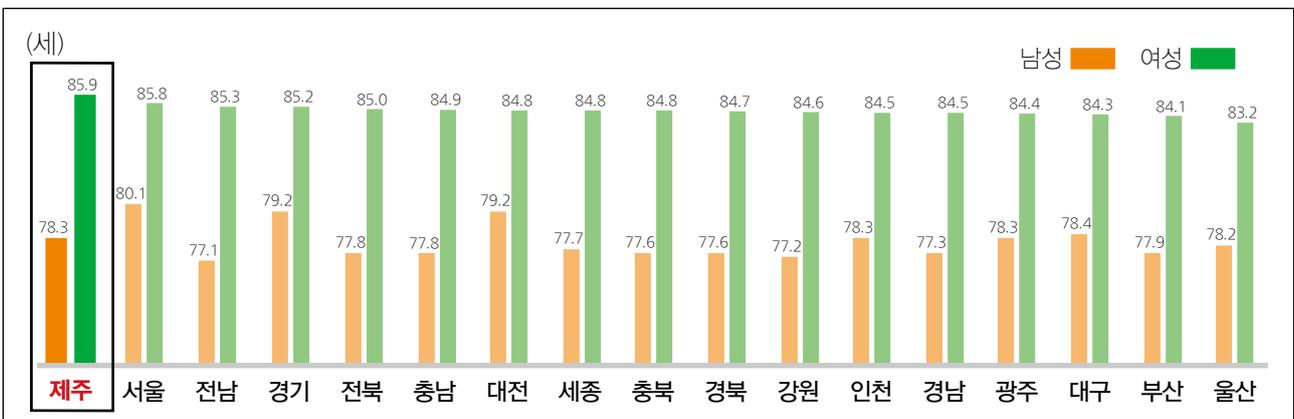
< 그림 1 > 성별 기대수명 추이(2000~2016)



출처 : 통계청, 「생명표」, 각 년도

- 전국 기대수명을 살펴보면, 2014년 제주지역 여성(85.9세)은 다른 시도 여성들보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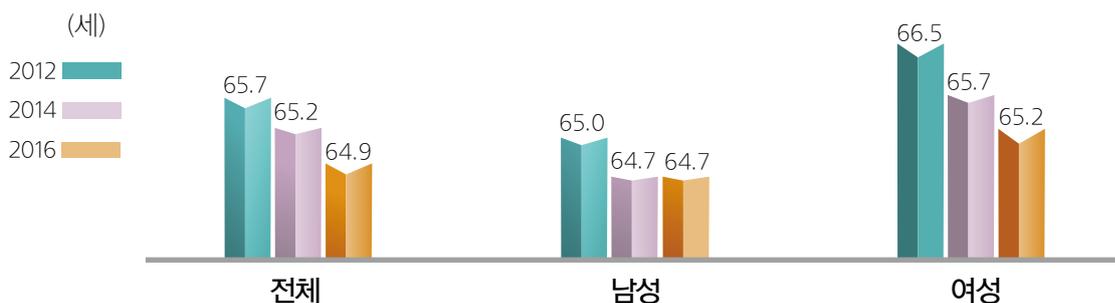
< 그림 2 > 전국 성별 기대수명(2014)



출처 : 통계청, 「생명표」, 2014

- 한편 보건복지부는 「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」(2016년~2020년)을 수립하면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(이하 건강수명)을 늘리는 것을 보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했음.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‘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’ 가 아닌 ‘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’를 나타내는 지표임
-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2012년 이후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음. 2016년 건강수명을 보면 여성 65.2세, 남성 64.7세로 남녀의 건강수명 차이는 0.5세로 기대수명 차이(6.1세)에 비해 격차가 거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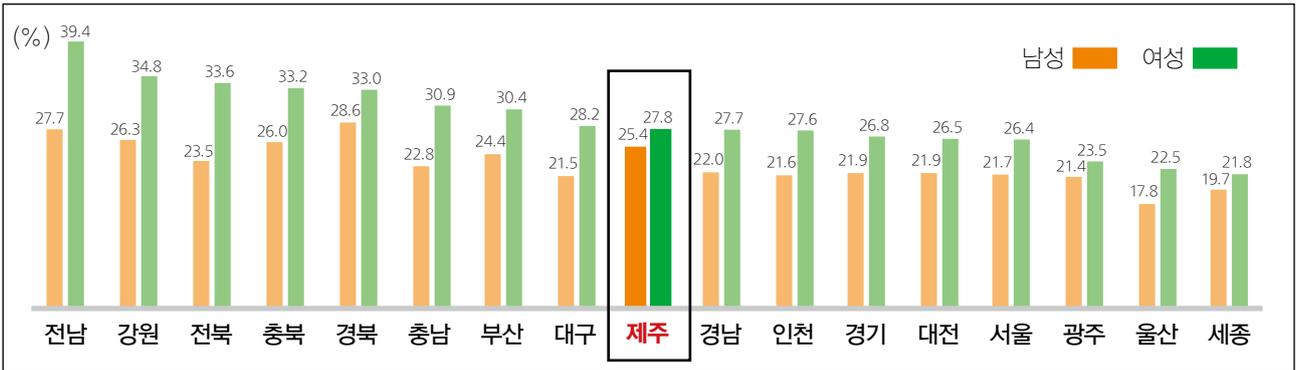
< 그림 3 > 전국 성별 건강수명 추이(2012~2016)



출처 : 통계청, 「생명표」, 각 년도

- 반면 건강수명에 대한 시도별 통계자료가 생산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2016년 통계청 「사회조사」에서 나타난 전국 남녀별 유병률⁵⁾을 살펴보고자 함. <그림 4>를 보면 제주 지역 여성의 유병률이 27.8%로 제주지역 남성(25.4%)보다 높았음
- 다른 시도 여성의 경우 전남(39.4%), 강원(34.8%), 전북(33.6%), 충북(33.2%), 경북(33.0%), 충남(30.9%), 부산(30.4%), 대구(28.2%), 제주(27.8%) 순으로 중간을 차지하고 있음

< 그림 4 > 전국 성별 유병률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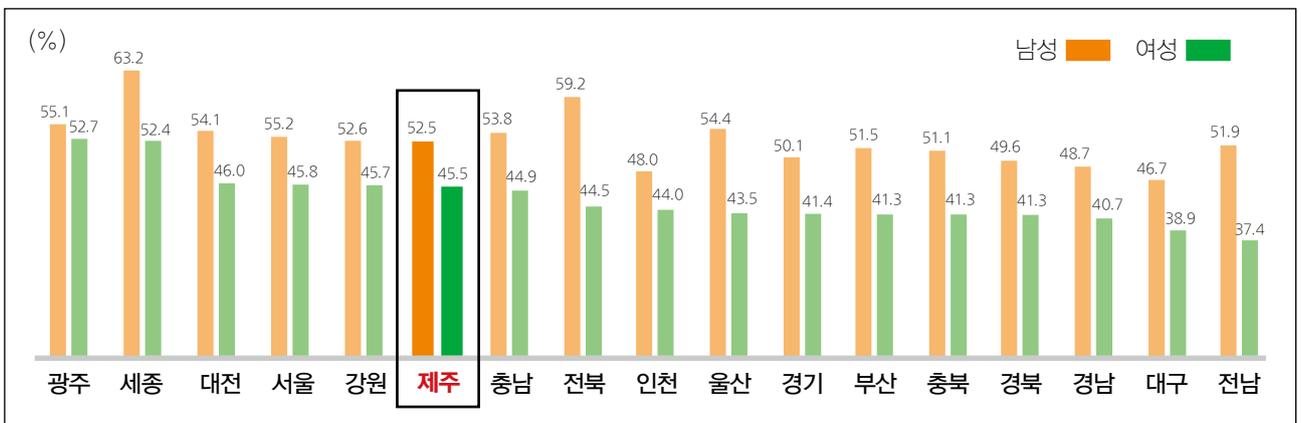


주 : 2주간 0세이상 인구 중 유병자의 비율 / 출처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2016

2) 주관적 건강평가 및 스트레스 인식정도

- 주관적 건강평가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'매우 좋다'와 '좋은 편이다' 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지표임. 주관적 건강평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수준을 반영한 지표임
- 전국 '주관적 건강평가'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들의 건강이 '좋다'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높았음. 제주지역 여성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' 좋음'이 45.5%로 나타나 세종(52.4%), 대전(46.0%), 서울 (45.8%), 강원 (45.7%) 다음 순으로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 그림 5 > 전국 성별 주관적 건강평가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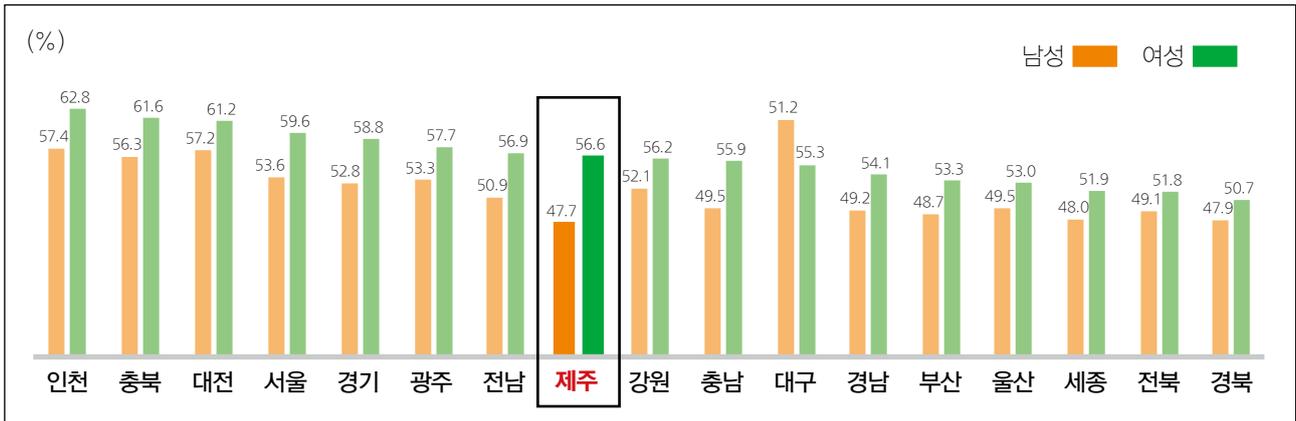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'매우 좋다'와 '좋은 편이다'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2) 만13세 이상 대상임 / 출처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2016

5)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

- 한편 스트레스는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. 스트레스 인식정도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'매우 많이 느꼈다'와 '느낀 편이다'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임
- 성별로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비율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았으며 제주지역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시도 여성에 비해 56.6%로 인천(62.8%), 충북(61.6%), 대전(61.2%), 서울(59.6%), 경기(58.8%), 광주(57.7%) 다음으로 상위로 나타남

< 그림 6 > 전국 성별 스트레스 인식정도(2016)



주: 1) '매우 많이 느꼈다'와 '느낀 편이다'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2) 만13세 이상 대상임
출처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2016

- 제주지역 여성들은 다른 시도 여성들보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더 많이 겪고 있다고 응답해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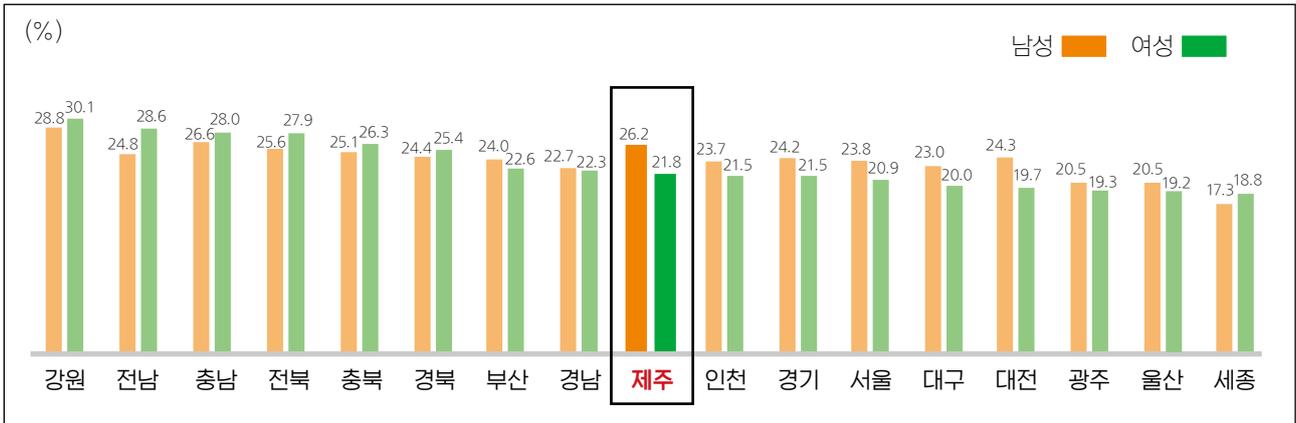
3)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

- 고혈압과 당뇨병은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며 보건복지부의 「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」(2016년~2020년)에서 중점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임

(1) 고혈압 유병률

- 전국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시도에서는 대체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
- 제주지역 여성들의 고혈압 유병률(21.8%)은 다른 시도 여성들의 고혈압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 중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

< 그림 7 > 전국 성별 고혈압 유병률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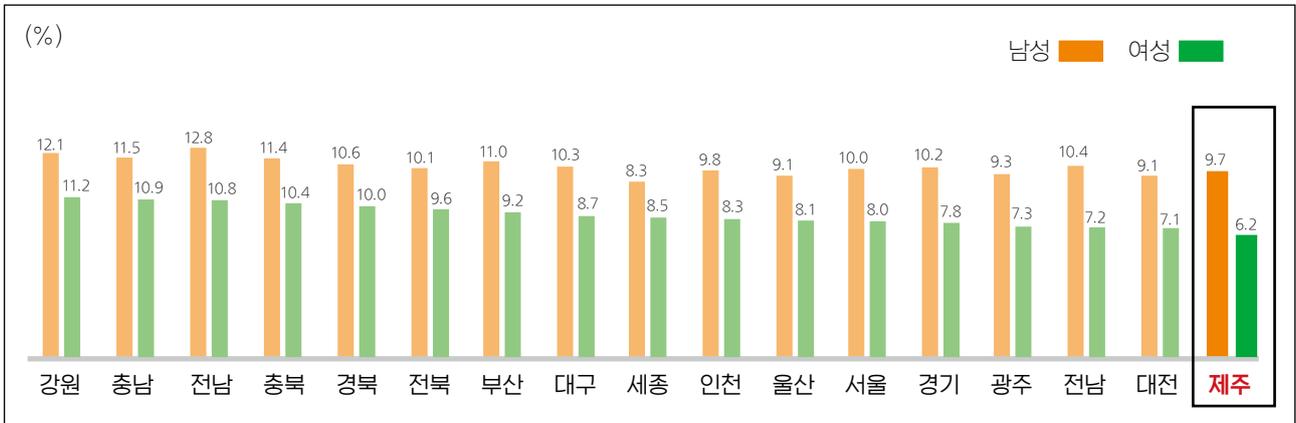


주 : 만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로 연령표준화 / 출처 : 지역건강조사, 「2008-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

(2) 당뇨 유병률

- 성별로 당뇨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세종을 제외하고 대체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당뇨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제주지역 여성의 당뇨 유병률은 6.2%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음

< 그림 8 > 전국 성별 당뇨 유병률(2016)



주 : 만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로 연령표준화 / 출처 : 지역건강조사, 「2008-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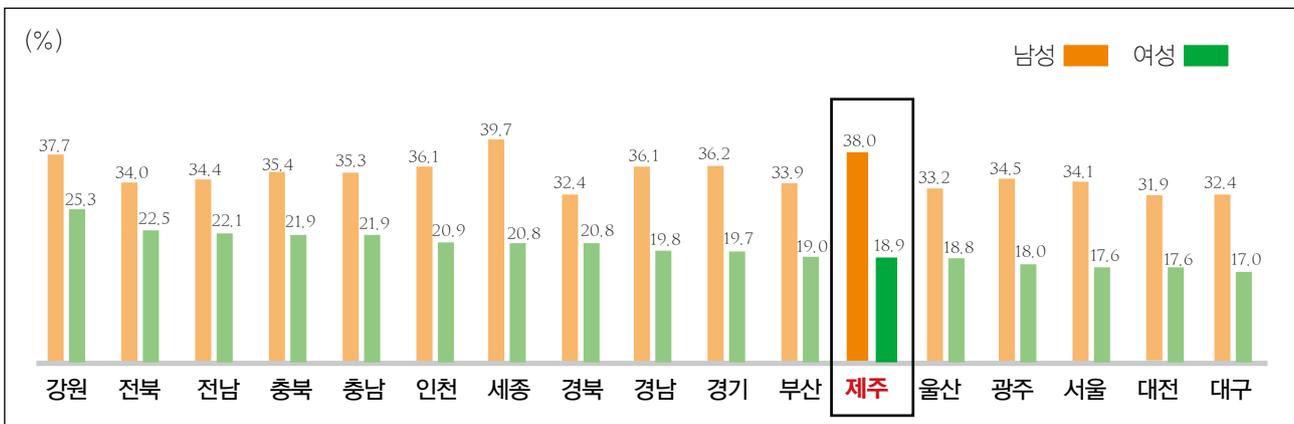
- 제주지역 여성들은 다른 시도 여성들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은 중간에 있지만 당뇨 유병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특징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세워져야 함

3. 전국과 제주지역 여성 건강행위

1) 비만율

- 비만은 당뇨병, 고지혈증,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,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(국립보건연구원, 「수치로 보는 여성건강」, 2016). 비만은 영양의 과잉섭취 및 신체활동의 부족 등 생활습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개선 하고자하는 노력에 의해 비만율을 낮출 수 있음
- 전국 비만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음. 제주지역 여성의 비만율은 18.9%로 대구(17.0%), 서울(17.6%)과 대전(17.6%), 울산(18.8%) 순으로 전국에서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

< 그림 9 > 전국 성별 비만율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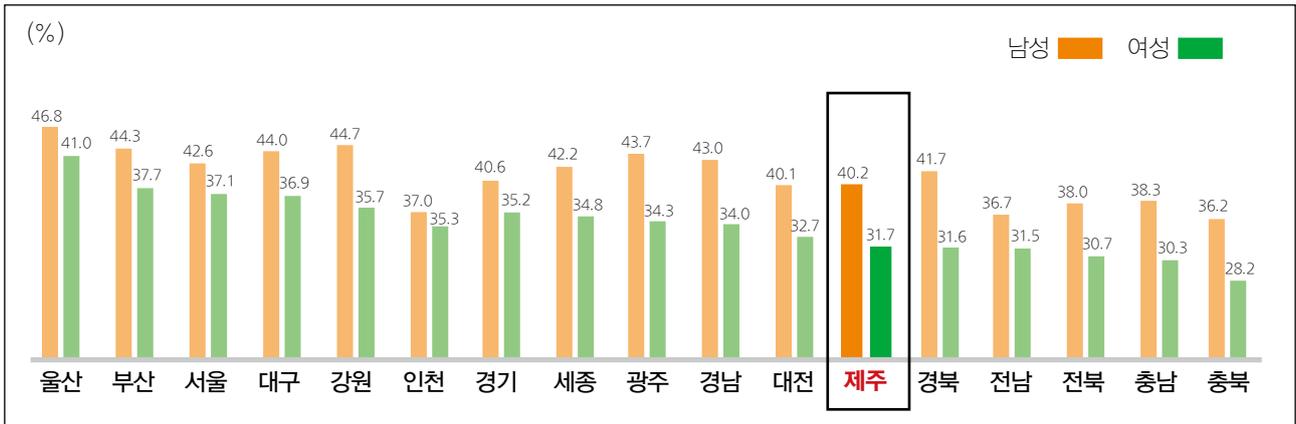


주 : 비만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(BMI,kg/m²)가 25이상인 비율임 / 출처 : 지역건강조사, 「2008-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

2) 규칙적 운동실천율

-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장질환, 비만,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우울증,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행위임. 특히, 신체활동 부족은 현대인들의 근력저하나 노년기 낙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신체 활동은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
- 전국 규칙적 운동실천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. 다른 지역 여성에 비해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31.7%로 충북(28.2%), 충남(30.3%), 전북(30.7%), 전남(31.5%), 경북(31.6%) 다음으로 낮음
- 제주지역 여성들은 비만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실천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
< 그림 10 > 전국 성별 규칙적인 운동실천율(2016)



주 : 만15세 이상 인구 중 규칙적 운동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/ 출처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2016

4. 요약 및 정책 시사점

- 지금까지 통계청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지표를 통해 본 제주지역 여성 건강의 질은 다른 시도 여성들에 비해 기대수명은 '상'이지만 유병률은 '중'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여성들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유병률을 낮추는 건강 관리 대책이 필요함
- 특히 제주지역 여성들은 다른 시도 여성들보다 스트레스와 고혈압 유병률이 '상위'와 '중간'에 있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균형을 위한 건강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
- 반면 제주지역 여성들은 당뇨 유병률과 비만율이 다른 시도 여성들에 비해 '낮지만' 규칙적 운동실천 율도 '낮아' 규칙적 운동습관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적 운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 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끝으로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근거가 되는 '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2018~2022)'의 4대 목표 중 하나로 '여성 건강 증진'이 제시 되었음.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는 남성과 다름을 알 수 있었음. 이후 제주지역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도정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

